

7/22/18

설교 제목: 영광이 새 같이 속히 날아가리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9 장 10-17 절

- (호 9: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절관주** 렘 2:2
- (호 9: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 (호 9:12)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 (호 9:13)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 (호 9:14)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절관주** 눅 23:29
- (호 9: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 (호 9:16)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 (호 9:17)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과의 만남부터 여지껏 지나온 관계를 회상하십니다.

너희를 만나 너무 기뻐고 감격한 나머지 온갖 좋은 것으로 먹여 주고 입혀 주고 그것도 모자라 금 은 보화로 장식까지 해 주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살만해지니까 결국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다고 분노를 토로하십니다.

그리고는 보응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호 9:10)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만났을 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무화과나무에서 첫
열매를 봄 같이 기쁘고 감격스러웠다고 하십니다.

사막인 광야에서 포도를 발견한다는 것이 얼마나 싱그러운 일이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에서 첫 열매가 맺힌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연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만남은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셔서 겨우 만난 만남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 장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들에서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잃어버린 자신의 것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사실입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자신의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아흔 아홉 마리 양들을 남겨 두고 찾아 헤맵니다.

주인은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쓸며 찾습니다.

아버지는 유산을 미리 받아 가지고 집을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밤낮 애타게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찾으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느냐고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거나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고 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죄를 덜 지어 깨끗했느냐하면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만민 중에서 그들을 택하여 찾아가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 사실을 신명기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신 7:6)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 7:7)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신 7:8)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신 7:9)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니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 7:10)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신 7:11)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기 전에는 이방인과 동일하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아픈 가슴을 토로하십니다.

(겔 16:22)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털줄도 자르지 않고 씻기지도 않은 채 피투성이가 되어 버려졌던 것을 불쌍히 여겨 거두어 씻기고
먹이고 입히고 키워 놓았더니. 배은망덕하게도 바람만 피우고 돌아다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제 어엿하게 잘 성장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브올에
가서 우상에게 몸을 바쳤습니다.

민수기 25 장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싯딤에 이르자 모압 여인들과 음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압 여인들이 그들의 신 바알에게 제사하기를 청하자 가서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열병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데 그때 열병으로
죽은 사람이 무려 이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 와서도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와 똑같이 우상
바알을 숭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할 그들이 오히려 우상에게 몸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우상과 같이 가증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호 9:11)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호 9:12)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라고 합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속히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로 인해 에브라임에게는 해산함이나 아이 배는 것이나 잉태함이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혹시 낱아서 기르는 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 자식을 하나님이 빼앗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을 멸절시켜 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호 9:13)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다고 하십니다.

두로는 시돈과 함께 지중해 해안 도시로 풍경이 아름답고 무역이 활발했던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같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녀들이 끌려가서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 28:62) 너희가 하늘의 별 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멸절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호세아 선지자가 간구합니다.

(호 9:14)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선지자는 자녀가 태어나도 죽임을 당하게 될 바에야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에브라임으로 배지 못하는 태와 젖 없는 유방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간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호 9:15)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하므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호 9:16)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직전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넌 후 요단강 한 가운데 깊은 곳에서 가져온 12 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또 할례를 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길갈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 백성의 자리를 박탈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의 후손을 끊어 놓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호 9:17)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2000 년 동안 세계를 떠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은 새 같이 속히 날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만나고자 그 시간에 그곳을 찾아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만나신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를 만나기 위해 그 시간에 그 길로 찾아 가신 것입니다.

그들이 높고 잘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 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는 낮고 천한 세리요, 창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찾아 가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낮고 천하여 보잘 것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만세 전에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고 우리를 만나러 의도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를 찾아 오신 것입니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적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 낮고 천한 죄인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너무나도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땅에 찾아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잘난 구석이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덜 지어서 깨끗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택하심을 입은 것입니다.

이런 큰 은혜를 입은 우리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지극히 당연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요?

세상에 빠져 세상을 하나님 보다 더 사랑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돈을, 권력을, 세상 지위를, 남편을, 자식을,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에 철통같이 믿고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영광은 새 같이 속히 날아가 버리고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